

		(2018. 10. 15.)		
		배포즉시(10시이후) 보도할 수 있습니다		
상하수도본부	보 도 자 료 PRESS RELEASE	하수도부장	이학승	750-7940
		하수시설과장	진기옥	750-7970
동영상: 있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사진(웹하드): 있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후속자료: 없음				

하수처리·악취 문제 근본적 해결...청정제주 지킨다.

제주(도두)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추진

- 올해부터 2025년까지 3887억 투입 1일 처리용량 22만톤으로 증설 -
- 처리장 운영 중단없는 무중단 공사기법 사용...처리시설은 지하화 -
- 주민과 행정 참여하는 추진위원회·행정내부 종합기획단 구성 운영 -

□ 제주특별자치도는

- 제주시 동지역 하수처리와 악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, 청정 제주를 만들기 위해 ‘제주(도두)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’을 추진한다.
- 제주(도두)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에는 2019년부터 2025년까지 국비와 도비 등 총사업비 3887억원을 투입되며, 기존 1일 처리용량이 13만톤에서 22만톤으로 9만톤이 증량된다.
- 특히 방류수 수질개선을 위한 수 처리공법의 현대화 및 하수 슬러지 처리공법이 개선되고, 하수처리시설이 전면 지하에 시설되면서 하수처리 및 악취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전망이다.
- 또 하수처리시설 위 지상에는 주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 등이 조성돼 친환경 하수처리장으로 탈바꿈하게 된다.

▣ **공정성·투명성 확보 위해 재정투자방식으로 추진**

□ 제주(도두) 하수처리장은

- 1993년(6만톤/일)과 1999년(7만톤/일)에 시설돼 25여 년 간 제주시 동지역 생활하수를 원활히 처리해 왔지만 최근 유입인구와 각종 개발사업 증가에 따른 하수발생량이 급격한 증가로 기존 시설(13만톤/일) 처리용량 과부하 및 시설 노후화에 대비해야 할 상황이다.
- 제주도는 이에 광역하수도정비기본계획(변경) 수립(2018. 6. 8.) 시 기존시설의 완전 지하화 하는 현대화사업과 시설용량(9만톤/일) 증설에 대해 환경부 승인을 얻은 바 있다.
- 지난 7월부터는 제주(도두) 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기본방향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.
- 이 용역에서는 국고지원 방안을 비롯해 무 중단 공사기법, 시설 부지의 적정성 등 환경부 협의를 위한 기본방향이 수립된다.
- 앞으로 현대화사업의 추진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최우선으로 해서 시설물의 현대화사업은 기존부지 내에서 재정사업 추진을 원칙으로 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.
- 무 중단 공사기법은 철거대상 시설의 대체시설을 우선 시공하여 가동한 후 대상시설을 철거한 후 다음단계 부지를 확보하는 방식이다.

※ 인접처리장으로 분산하여 순차적으로 철거 시공(박달 사례)
처리계열별로 순차적으로 철거 시공(수영 사례)

- 제주(도두) 하수처리장 시설부지는 총면적 111,466㎡(33,718평) 중 2/3정도가 소요될 전망이다.
- 총사업비는 3,887억원(국비 954, 지방비 2,993)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하수처리시설 증설(9만톤/일)에 대한 사업비만 국고지원(954억원)이 예상되어 기존시설 현대화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대중앙 절충을 통해 추가로 국고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.
- 사업추진은 건설사업관리(CM)와 설계시공 일괄방식(턴키)으로 사업을 추진하고, 토목, 건축, 기계, 전기, 계측제어, 조정 등 지역업체 참여를 보장하고 내년도에 건설사업관리(CM)와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병행 시행하여 사업기간을 최대한 단축시켜 나갈 계획이다.

□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

- 우선 내년도 예산에 67억원을 편성하여 건설사업관리(CM)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.

▣ 행정 내부 종합기획단과 주민 참여하는 현대화 추진위 구성·운영

- 제주도는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하고, 관련 실·국장이 참여하는 제주(도두)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예산지원 및 분석, 전담조직 신설, 갈등민원 해소, 해양오염 방지 등 종합적인 행정지원을 위한 기획단이 운영할 계획이다.

- 특히 지역주민 대표와 전문가, 행정이 함께 참여하는 제주(도두)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쟁점사항별 토론회와 협의과정을 거쳐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추진할 방침이다.

□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

- “제주(도두)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올해 하반기부터 중앙정부와 재원협의 등 각종 절차를 이행할 계획”이라며 “2025년까지 3,887억원을 투입해 하수처리시설 전체를 지하에 시설하고, 상부는 공원화 등으로 시설해서 친환경적인 하수처리장으로 건설해 나가겠다.” 고 강조했다.
- 이어 “이번 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투자 방식으로 추진하고, 종합적인 공공하수처리 시스템을 구축해 청정 제주를 만들어 나가겠다.” 고 말했다.

□ 한편 제주도에서는

- 해양수질과 누수 등 도내 다른 하수처리시설에 대해 하수처리장 주변 수질문제, 처리장 증설에 따른 주민과의 갈등문제, 과도한 중계펌프장 등 관리상 제반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내년에 인력, 재정 등을 투입하기로 했다.
- 또 주민소통, 환경, 해양, 관광 등 관련부서와 협력을 통해 안정적인 하수처리를 위한 종합대책을 이달 중 수립하여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나가기로 했다.